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적대감 사이에서 부적응적 대처의 매개효과

김 은 혜

서 수 균[†]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적대감 사이에서 부적응적인 인지 및 행동적 대처의 매개효과를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대학생 404명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애성향,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자기비난, 타인비난, 반추, 파국화), 부적응적인 분노대처행동(회피, 공격적 표현), 적대감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내현적 자기애성향은 부적응적인 인지 및 행동적 대처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2)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적응적인 인지 및 행동적 대처는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적대감 사이를 부분매개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들의 적대감 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들이 사용하는 부적응적 대처에 대한 인지적·행동적인 치료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주요어 : 내현적 자기애성향, 부적응적인 인지 및 행동적 대처, 적대감

[†] 교신저자: 서수균,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609-735)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30번지
Tel: 051-510-2125, Fax: 051-581-1457, E-mail: sgseo@pusan.ac.kr

Lasch(1976)는 자기 본위 세대, 문화적 나르시시즘, 개인주의, 이기주의 등을 언급하면서 미국 현대 사회를 자기에의 사회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자기에적 양식이 현대인이 겪는 불안에 잘 대처하게 해주며 현대인들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보았다. 자기에적 양식은 최고를 중시하는 현대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생겨난 자연스러운 문화적 흐름으로, 현대 사회의 주요 특징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적응적인 자기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존감을 조절할 수 있게 하여 일상생활의 활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부적응적인 자기에는 웅대하지만 자기개념이 취약하고 분노, 우울, 적대감 등의 부정적 정서가 높으며 신체 및 심리적 질환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정남운, 2001). 적당한 수준의 자기에는 경쟁 사회에서 동기를 부여하고 활력을 갖게 해줌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을 높여준다. 하지만 지나친 자기에성향은 인간관계를 어렵게 하고 심리적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다(권석만, 한수정, 2000).

자기에는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표현 양상에 따라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로 구분된다(Gabbard, 1989; Hendin & Cheek, 1997; Kohut, 1977; Rathvon & Holmstrom, 1996; Wink, 1991). 외현적 자기에는 웅대성, 과장된 자기 지각, 과시적인 태도 등을 주된 특징으로 하며, 열등감, 우울, 소진감 등과는 적은 관련성을 보인다. 반면에 내현적 자기에는 타인의 평가에 대한 높은 민감성, 상처에 대한 취약성, 웅대성의 억압 등이 특징이며, 우울이나 불안 같은 불편감과 높은 관련성을 보인다(강선희, 정남운, 2002). 두 유형의 자기에가 자신에 대한 지나친 사랑과 자기중심성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지니면서도 서로 다른 현상학적

인 모습을 보이는데, Cooper(2000)는 이유를 취약한 자기개념에 대한 방어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즉, 외현적 자기에자는 자존감이 매우 높아서 자신의 웅대성을 과시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며 타인의 찬사를 요구하고, 타인의 비판이나 거절에 쉽게 분노하고 상대방을 평가 절하함으로써 자존감을 보호한다. 반면에 내현적 자기에자는 자존감에 상처가 될 만한 상황을 아예 피함으로써 자존감을 보호한다. 즉, 이들은 타인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피고 확인을 피함으로써 비난받을 수 있는 단서를 남기지 않으려 한다(권석만, 한수정, 2000; Cooper, 2000).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내현적 자기에자가 외현적 자기에자 보다 더 부적응적이고 역기능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였다(강선희, 정남운, 2002; Hart & Joubert, 1996; Wink, 1991). 외현적 자기에자는 지속적인 자기고양을 통해 적응적인 이점을 얻어 삶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 내현적 자기에자는 자기 확신의 부족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Rose, 2002). 본 연구에서는 내적으로 더 취약하고 부적응적인 양상을 많이 드러내는 내현적 자기에성향에 초점을 두었다.

내현적 자기에성향자는 자기상이 상처 입는데 과민하고 부정적 평가에 취약하기 때문에, 타인의 비판이나 반응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쉽게 위축되며 과도하게 감정을 억제하고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을 불편해 하며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쉽게 느낀다(권석만, 한수정, 2000; 이원희, 2001; Hart & Joubert, 1996; Kohut, 1977; Wink, 1991). 언뜻 보기에 이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잘난 척하는 자기에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이들의 과민한 행동 양상은 결국 “나는 상처받아서 안되고, 거절당해서도 안되며, 못하는 것이 있어서도

안되고, 밍보여서도 안되는 사람이다”라는 ‘자기애적’ 혹은 ‘자기도취적인’ 생각과 상당 부분 관련되어 있다.

적대감은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방식으로 세상이나 타인을 바라보는 인지적인 태도로, 대상이나 사람을 향한 공격 행동을 동기화시킨다(Buss & Perry, 1992). 흥분된 상태인 분노감은 시간이 지나 완화되더라도 원한이나 복수심 같은 적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으며, 분노 유발 원인이 사라지더라도 적대감은 유지되기도 한다(백승혜, 2004; Spielberg, Jacobs, Russell, & Crane, 1983). 적대적인 사람들은 타인이나 세상에 대해 부정적이고 냉소적이다. 또한 타인의 행동을 피해의식적으로 해석하고 일반 사람들이 기만적이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위협적인 상황에서 방어적이고 회피하는 태도를 흔히 취한다(이원희, 2001). 적대감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과 진솔한 관계를 못 맺고 경계하고 의심하는 경향이 많아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등,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이원희, 2001).

대처란 위협이나 도전적인 요구들을 다루기 위한 인지 및 행동적 노력으로, 사람들은 스트레스 자극이 야기한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의 대처 전략을 사용한다(Lazarus & Folkman, 1984). 내현적 자기애자는 정서조절을 하는데 어려움을 흔히 보인다(서선이, 2007). 내현적 자기애성향은 적응적 대처와는 상관이 없었고 부적응적 대처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강문선, 2011; 최정인, 2009).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던 부적응적인 인지 및 행동적 대처에 관심을 두었다. 부적응적인 인지적 대처의 하위요인에는 자기비난, 타인비난, 반추, 파국화가 있

고, 부적응적인 행동적 대처의 하위요인에는 회피, 공격적 표현이 있다(서수균, 김윤희, 2010; Garnefski, Kraaij & Spinhoven, 2001).

선행연구들에서 적대감은 자기애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김계령, 1997; 백승혜, 2004; 차타순, 2002; Hart & Joubert, 1996; McCann & Biaggio, 1989; Patalano, 1997; Robbins & Dupont, 1992; Rhodewalt & Morf, 1998). 주장적이고 과시적인 외현적 자기애성향자에 비해 밖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훨씬 적고, 주관적 불편감은 더 많이 경험하는 내현적 자기애성향자의 적대감이 더 높다(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백승혜, 2004; 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 Cooper & Ronningstam, 2002). 외현적 자기애성향자는 타인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방어적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기대처럼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고 좌절하지는 않지만,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는 타인의 반응에 예민하고 소심하여 똑같은 상황에서도 외현적 자기애성향자보다 더 많은 좌절감과 적대감을 느낀다(백승혜, 2004). Cooper와 Ronningstam(2002)은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들이 타인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갖고 있어서 표면적으로 공감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쓴다고 하였다.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들은 이러한 미묘한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비판이나 비난에 예민하기 때문에 타인의 눈치를 많이 살피고 분노를 느끼더라도 이를 과도하게 억제하여 적대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백승혜, 2004).

다양한 정신병리는 사람들이 불쾌한 정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적응적인 정서 조절 패턴이 반복되어 만성화된 결과 생긴다(이지영, 권석만, 2006). 내현적 자기애성향자

는 부적응적 대처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강문선, 2011; 최정인, 2009). 내현적 자기애성향자가 주로 사용하는 인지적인 부적응적 대처의 하위요인들을 살펴보면 파국화, 타인 비난, 반추, 자기비난, 회피가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파국화, 타인비난, 반추, 회피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문선, 2011; 이승현, 2011; 최정인, 2009). 이들은 부정적인 피드백이 주어졌을 때 타인을 비난하면서도 반추과정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며, 파국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파국적으로 해석하여 더욱 자아 위협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인다(강문선, 2011; 최정인, 2009). 또한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는 상황 자체를 해결하기 보다는 회피하는 행동적인 부적응적 대처를 취한다(박지영, 2009). 이러한 부적응적 대처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우울감과 분노감, 적대감 수준이 높다(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Wink, 1991). 한편, 서수균(2007)의 연구에서 적대감이 높을수록 내적 갈등이 심하고 공격행동을 많이 보일 뿐만 아니라 무력감 사고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 해결 상황에서 적응적인 대처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시사되었다(서수균, 2007).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들은 부적응적인 대처를 많이 사용하여 적대감이 높아지고, 적대감이 높아질수록 더욱 부적응적인 대처를 많이 사용하는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정서적, 대인관계적 문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내현적 자기애성향은 지속성을 지닌 성격적 특성이다. 성격은 잘 변하지 않지만 내현적 자기애성향자가 어떤 대처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이들의 태도나 인식변화가 있을 수 있다. 적대감은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방식으로 세상이나 타인을 바라보는 인지적인 태도이므로,

내현적 자기애성향자가 사용하는 대처에 따라 이들의 적대감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내현적 자기애는 적대감이나 부적응적 대처와 일관되게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부적응적 대처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대감이 높았다(백승혜, 2004; 서수균, 2007). 적대감이 높을수록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에서 높은 수준을 보여, 분노표현과 관련된 내적 갈등이 심한 것으로 시사되었다(서수균, 2007). 또한 적대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공격행동을 많이 보일 뿐만 아니라 무력감 사고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 해결 상황에서 적응적인 대처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시사되었다(서수균, 2007). 분노표출은 회피 대처행동, 부정적 정서표출 대처행동과 관련 있었으며, 분노억제는 회피 대처행동과 관련 있었다(박지영, 2009). 또한 분노억제는 인지적인 부적응적 대처의 하위요인 중 반추, 자기비난, 타인비난, 파국화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김진희, 2011). 아울러 분노억제를 많이 하면 억제된 분노가 부정적인 감정들로 남아 적대감이 높을 수 있다(백승혜, 2004).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는 분노를 억제하여 적대감이 높으므로 정서적, 대인관계적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들이 인지적인 부적응적 대처의 하위요인인 자기비난, 타인비난, 반추, 파국화와 행동적인 부적응적 대처의 하위요인인 회피를 많이 사용할수록 적대감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에서 살펴 본 여러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최근에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정서조절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내현적 자기애와 적대감, 내현적 자기애와 부

적응적 대처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연구는 있으나, 내현적 자기애, 적대감, 부적응적 대처라는 세 변인들 사이의 인과적 관계성을 살펴보는 것은 없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들이 어떤 이유로 일관되게 적대감이 높은지,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부적응적 대처가 적대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명료하게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적대감 사이에서 부적응적인 인지 및 행동적 대처가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가설을 세우고 이를 탐색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부적응적 대처는 인지적 대처와 행동적 대처로 구분해서 평가하였다.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적대감 사이에서 부적응적인 인지 및 행동적 대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Baron과 Kenny(1986)의 절차에 따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Z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가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적대감 사이의 관계를 더 명료하게 이해하고,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들의 적대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인지 및 행동적 개입을 탐색적으로 살펴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 법

연구대상

대학생 410명을 대상으로 수업 시간에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총 410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한 404명(남: 199명 여: 205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참가자들의 연령은 20대에서

30대 사이였으며, 20-24세(73.8%), 25-29세(25.1%), 30대(1%)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도구

내현적 자기애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

CNS는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비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Akhtar와 Thomson(1982)가 제안한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에 기초하여 개발한 척도이다. 총 45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애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5개의 하위척도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공통요인과 내현적 자기애만의 고유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공통요인 2개는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9문항), 착취/자기중심성(9문항)으로 명명하였으며, 내현적 자기애만의 고유요인 3개는 목표불안정(9문항), 과민/취약성(10문항), 소심/자신감 부족(8문항)으로 명명하였다. 강선희와 정남운(2002)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0이었다.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는 .90이었다.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질문지(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RQ)

CERQ는 위협적인 사건이나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한 후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정서를 조절하는지와 관련된 인지적인 전략을 측정하기 위하여 Garnefski, Kraaij, & Spinhoven (2001)이 개발하고 김소희(2004)가 번안한 척도이다. 총 36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로, 9가지 하위요인이 각각 4개의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하위요인은 5가지의 적응적 전략과 4가지의 부적응적 전략으로 나뉜다. 적응적 전략에는 조망확대, 계획 다시 생각하기, 긍정적 초점변경, 수용, 긍정적 재평가가 포함되며 부적응적 전략에는 자기비난, 타인비난, 반추, 파괴화가 포함된다. 김소희(2004)의 연구에 따르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이 .79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대처에 초점을 두고 있어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 척도만을 사용하였고, 내적 합치도는 .79이었다.

분노대처행동 척도(Anger Coping Behavior Scale: ACBS)

ACBS는 서수균과 김윤희(2010)가 분노경험 상황에서 개인이 보이는 대처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이다. 총 34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로,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에는 이성적 대처(8문항), 공격적 표현(8문항), 회피(6문항), 정서적 해소/털어놓기(6문항), 기분전환(6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이성적 대처(8문항), 정서적 해소/털어놓기(6문항), 기분전환(6문항)은 적응적 대처로 분류되고, 공격적 표현(8문항)과 회피(6문항)는 부적응적 대처로 분류된다. 서수균과 김윤희(2010)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 내적 합치도는 .81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대처에 초점을 두고 있어 부적응적 분노대처행동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적응적 분노대처행동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4이었다.

공격성 질문지(Aggression Questionnaire-Korean version: AQ-K)

AQ-K는 공격성, 분노감, 적대감을 평가하기

위해서 Buss와 Perry(1992)가 개발하고 서수균과 권석만(2002)이 변안한 척도이다. 총 29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로,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하위요인에는 신체적 공격성(9문항), 언어적 공격성(5문항), 분노감(7문항), 적대감(8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서수균과 권석만(2002)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0이었고, 적대감의 내적 합치도는 .7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적대감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적대감 척도만을 사용하였고, 내적 합치도는 .76이었다.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부산 소재 대학교 심리학과와 전공 및 교양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님들과 재료공학과와 전공 및 교양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님들의 승인을 통해 진행되었다. 교수님들의 사전 공지에 따라 학생들은 수업 시간을 할애하였으며, 모든 설문은 수업을 하시는 교수님과 연구자의 감독 하에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설문을 시작하기 전에 참가자의 권리, 연구의 윤리성, 설문 작성시의 유의점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듣고 설문을 시작하였다. 총 소요 시간은 약 20-30분이었다.

자료분석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백분율을 알아보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량 분석을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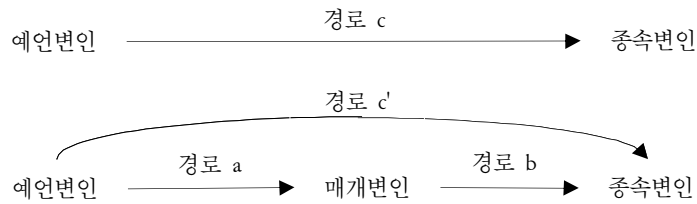


그림 1. 매개검증

시하였고,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적대감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대처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의 절차에 따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Z test를 실시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절차는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하며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른다. 어떤 변인을 매개변인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예언변인은 종속변인과의 유의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경로 c). 둘째, 예언변인은 가정된 매개 변인과 유의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경로 a). 셋째, 매개변인과 종속변인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경로 b). 마지막으로 종속변인에 대한 예언변인의 영향이 매개변인을 통제된 후에 감소하는지 살펴본다

(경로 $c >$ 경로 c'). 매개변인을 투입했을 경우,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과의 관계(c')가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면 매개변인은 완전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판단하고,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줄어들었다면(c') 매개변인은 부분매개효과를 가진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선행조건들이 충족되면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Sobel의 Z test를 이용한다(Sobel test : $Z = \frac{ab}{\sqrt{b^2 s_a^2 + a^2 s_b^2}}$). a는 경로 a의 B값, b는 경로 b의 B값, s_a 는 경로 a의 표준오차, s_b 는 경로 b의 표준오차이다. Z값이 1.96 보다 클 때, 매개 효과가 유의하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표 1)

표 1.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척도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내현적 자기애성향	404	111.47	24.78	
부적응적 대처	인지적 대처	404	40.99	9.13
	행동적 대처	404	29.73	9.00
적대감	404	16.88	6.25	

상관분석

상관분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적대감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62, p<.01$. 내현적 자기애성향의 모든 하위요인은 적대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그 중 과민/취약성이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고,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소심/자신감 부족의 순으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63, p<.01$; $r=.44, p<.01$; $r=.43, p<.01$.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부적응적인 인지정서조절전략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53, p<.01$. 부적응적인 인지정서조절전략의 모든 하위요인은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그 중 파국화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반추, 타인비난, 자기비난 순으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52, p<.01$; $r=.40, p<.01$; $r=.39, p<.01$; $r=.20, p<.01$.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부적응적인 분노대처행동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51, p<.01$. 부적응적인 분노대처행동의 모든 하위요인은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회피와 공격적 표현 순으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46, p<.01$; $r=.40, p<.01$.

부적응적인 인지적 대처(인지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적대감 사이에서 인지적·행동적인 부적응적 대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적대감 사이에서 부적응적인 인지적 대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일련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내현적 자기애성향은 부적응적인 인지적 대처와 적대감을 유의하게 설명해 주었다, $\beta=.53, p<.001$, $\beta=.62, p<.001$. 이어서 적대감을 종속변인으로 지정하고 부적응적 인지적 대처와 내현적 자기애성향을 차례로 예언변인으로 넣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성향은 적대감에 정적인 방향으로 .62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beta=.62, t=15.96, p<.001$). 2단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성향은 부적응적인 인지적 대처에 정적으로 .53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beta=.53, t=12.69, p<.001$). 3단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성향은 적대감에 .47($\beta=.47, t=10.73, p<.001$)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부적응적인 인지적 대처에는 .28($\beta=.28, t=6.34, p<.001$)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매개변인이 포함됨으로써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나 회귀계수 값이 .15 가량 감소되었음을 통해,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적대감 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인 인지적 대처가 부분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Z test를 실시한 결과, Z값이 유의하게 나타나, 부적응적인 인지적 대처의 간접효과가 유의했다, $z=5.66, p<.001$.

부적응적인 행동적 대처(분노대처행동)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다음으로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적대감 사이에서 부적응적인 행동적 대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일련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내현적 자기애성향은 부적응적인 행동적 대처와 적대감

표 2. 주요 변인간 상관

	1	1-1	1-2	1-3	1-4	1-5	2	2-1	2-2	2-3	2-4	3	3-1	3-2	4
1. 내현적 자기애성향															
1-1. 목표 불안정	.72**														
1-2.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67**	.24**													
1-3. 학위자기중심성	.60**	.24**	.46**												
1-4. 파민취약성	.85**	.49**	.56**	.40**											
1-5. 소심(자신감 부족)	.72**	.52**	.27**	.39**	.67**										
2. 부정적 인 인지정서조절전략	.53**	.23**	.48**	.25**	.59**	.39**									
2-1. 자기비난	.20**	.09**	.17**	.05**	.23**	.20**	.59**								
2-2. 타인비난	.39**	.15**	.35**	.35**	.37**	.23**	.57**	.04**							
2-3. 반추	.40**	.17**	.40**	.09**	.47**	.31**	.82**	.45**	.21**						
2-4. 과묵화	.52**	.25**	.43**	.25**	.59**	.36**	.86**	.32**	.47**	.62**					
3. 부정적 인 분노대처행동	.51**	.26**	.34**	.46**	.52**	.32**	.44**	.17**	.44**	.24**	.42**				
3-1. 공격적 표현	.40**	.17**	.32**	.50**	.37**	.15**	.37**	.08**	.48**	.15**	.37**	.84**			
3-2. 회피	.46**	.26**	.24**	.27**	.50**	.40**	.36**	.21**	.26**	.25**	.34**	.83**	.40**		
4. 적대감	.62**	.35**	.44**	.42**	.63**	.43**	.53**	.22**	.38**	.40**	.50**	.53**	.43**	.46**	

***p<.01(양방향검증)

표 3.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적대감 사이에서 부적응적인 인지적 대처(인지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예언변인	종속변인	R^2	R^2 change	F change	Beta	t
내현적 자기애성향	적대감	.388			.62	15.96***
내현적 자기애성향	부적응적인 인지적 대처	.286			.53	12.69***
부적응적인 인지적 대처	적대감	.284		159.28***	.28	6.34***
내현적 자기애성향		.444	.160	115.17***	.47	10.73***

*** $p < .001$

표 4.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적대감 사이에서 부적응적인 행동적 대처(분노대처행동)의 매개효과

예언변인	종속변인	R^2	R^2 change	F change	Beta	t
내현적 자기애성향	적대감	.388			.62	15.96***
내현적 자기애성향	부적응적인 행동적 대처	.269			.52	12.16***
부적응적인 행동적 대처	적대감	.286		160.73***	.29	6.67***
내현적 자기애성향		.449	.163	118.85***	.47	10.90***

*** $p < .001$

을 유의하게 설명해 주었다, $\beta = .52, p < .001$, $\beta = .62, p < .001$. 이어서 적대감을 종속변인으로 지정하고 부적응적인 행동적 대처와 내현적 자기애성향을 차례로 예언변인으로 넣어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성향은 적대감에 정적인 방향으로 .62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beta = .62, t = 15.96, p < .001$). 2단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성향은 부적응적인 행동적 대처에 정적으로 .52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beta = .52, t = 12.16, p < .001$). 3단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성향은 적대감에 .47($\beta = .47, t = 10.90, p < .001$)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부적응적인

행동적 대처에는 .29($\beta = .29, t = 6.67, p < .001$)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매개변인이 포함됨으로써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나 회귀계수 값이 .15 가량 감소되었음을 통해,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적대감 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인 행동적 대처가 부분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Z test를 실시한 결과, Z값이 유의하게 나타나, 부적응적인 행동적 대처의 간접효과가 유의했다, $z = 5.91, p < .00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적대감이 유의한 상관을 가지며, 이들의 관계를 부적응적인 인지 및 행동적 대처가 매개한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내현적 자기애성향은 적대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부적응적인 인지적 대처(인지정서조절전략)의 모든 하위요인들(자기비난, 타인비난, 반추, 파국화)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내현적 자기애성향은 특히 파국화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이들은 부정적인 사건이 생겼을 때, 상황을 파국적으로 해석하고 반추하며 타인이나 자신을 비난함으로써 불쾌한 감정을 더욱 증폭시켜 정서 조절의 어려움에 더 취약할 것으로 여겨진다. 내현적 자기애성향은 부적응적인 분노대처행동의 하위요인들(공격적 표현, 회피)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최승미(2011)는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는 체념, 투사, 억제, 수동공격 등의 자기억제적이며 갈등회피적인 유형의 방어를 사용하여 충동이나 욕구를 미성숙하게 처리하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한다고 보고하였다. 조은영(2011)의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는 전위된 공격성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전위공격성이란 분노유발 대상자에게는 분노표현을 억제하고, 다른 대상에게 공격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들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분노감이나 적대감을 많이 경험하지만 이를 과도하게 억제 및 억압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렇게 쌓아둔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는 수동공격적인 방식으로 표출되어 관계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는 소심하고 타인을

많이 의식하기 때문에, 실제로 공격적 표현을 못하지만 적대감은 높아지고 이를 조절하는 대처능력은 부족해서 높아진 적대감이 극단적으로 표출될 수 있다.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적대감이나 대처방식 간의 관계를 다룬 기존 연구들은 상관관계만을 봤다는 제한점이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대처가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적대감 사이를 매개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적대감 사이의 관계를 더 명료하게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적대감 사이에서 부적응적 대처가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가설을 세우고 매개효과 검증 결과,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적대감 사이에서 부적응적인 인지 및 행동적 대처가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지지되었다.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들은 정서조절을 위해서 자기/타인비난, 반추, 파국화 등의 인지적 전략을 사용하지만, 이러한 전략들은 적대감을 오히려 증가시켜 개인이 부정적 정서 통제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으로 여겨진다. 더해서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들은 분노감에 대한 대처 행동으로 회피나 공격적 표현 같은 부적응적인 대처를 많이 사용하고 이러한 대처들 또한 적대감을 감소시키기 보다는 증가시킴으로써 부정적 정서 통제를 더 어렵게 하는 것으로 시사된다. 증가된 적대감은 호의적인 대인관계를 어렵게 함으로써 개인의 대인관계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만족감도 해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주된 의의는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적대감 사이를 매개하고 있는 인지적 대처 전략이나 행동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는 점이다.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파국적인 반추는

스트레스 사건을 더 위협적으로 지각하게 만들고 그 원인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림으로써 타인에 대한 적대감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들은 분노 유발 상황에서 회피적인 행동도 보이지만 공격적 표현과 같은 과격한 행동도 많이 보인다는 점이다. 공격적 표현은 가해자로 여기는 상대방이 아닌 제 3자에 대한 전위된 공격적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조은영, 2011). 회피된 공격적 표현이든 모두 공격성을 높이고 주관적 안녕감을 떨어트린다(서수균, 2012; 서수균, 김윤희, 2010). 이러한 결과들은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들의 적대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인지 및 행동적 개입의 필요성을 지지해 준다. 예컨대, 상담 장면에서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들의 파국화 과정을 멈추게 하거나 회피 행동을 줄이고 자기주장적인 대인관계 기술을 증진시키는 것은 적대감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 성인, 청소년 및 아동, 임상 집단까지 확대해서 적용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폭넓은 집단표집을 통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모든 자료는 자기보고형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도구의 특성상 참여자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반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들은 평가에 민감하기 때문에 더욱 방어적인 태도로 설문지에 응답하였을 소지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과 더불어 면접상담, 관찰자 평정, 실험연구 등의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

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상관연구에 근거하고 있어서 변인들의 인과적인 관계를 제안하기는 어렵다. 내현적 자기애성향, 부적응적인 인지 및 행동적 대처, 적대감의 인과적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개변인을 조작하는 실험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추후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성 성격 양상의 남녀차이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이를 다시 검증한다면, 성별에 따른 치료적 개입에 대한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것 있을 것이다. 다섯째,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는 평가에 매우 민감하고 소심하기 때문에 분노를 억제하고 공격적 표현을 쉽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덜 고려해도 되는 가족이나 연인 등의 친밀한 관계에서는 공격적인 표현을 더욱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친밀한 정도를 나누어서 내현적 자기애성향자가 공격적 표현을 하는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들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전위공격성이나 수동-공격적 표현을 쥔 수 있는 척도를 사용한다면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들의 공격적 표현 양상을 좀 더 상세히 규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인으로 인지 및 행동적인 부적응적 대처만을 살펴본 결과, 완전매개가 아닌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적대감 사이에서 부적응적 대처 뿐 만아니라 다른 매개변인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한다. Patalano(1997)는 자기애자들이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이 내재하여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차타순(2002)은 자기애자들이 친밀한 관계를 맺기 어렵고 극단적인 이상화와

평가절하를 반복하는 등의 피상적이고 불안정한 대인관계 패턴으로 인해서 적대감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이런 관점으로 살펴본다면 추후연구에서는 인지 및 행동적인 부적응적 대처 뿐만 아니라 부적응적인 대인관계 양상 역시 매개변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일곱째, 추후연구에서는 참여자 중에서 적대감을 제외한 나머지 역기능적인 정서(우울, 불안)가 높지 않은 사람을 선택하는 등의 참여자 선발에 대한 screening을 확실히 한다면, 다른 역기능적인 정서가 혼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가 진행되므로 내현적 자기애성향이 적대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더 명료한 결과가 나오리라 예상된다. 여덟째, 본 연구는 참여자에 대한 정보가 많이 생략되어 있어 참여자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상세한 정보를 알아본다면 참여자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연구의 결과를 보다 풍부하게 해석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들이 지닌 특성과 이들의 정서조절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부적응적인 인지 및 행동적인 대처를 매개효과 검증으로 내현적 자기애성향이 적대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적대감 사이의 관계를 더 명료하게 이해하게 되어, 상담 및 심리치료 장면에서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들의 마음속 깊이 지닌 적대감을 감소시키고, 이들의 부적응적 양상을 개선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인지 및 행동적 치료개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 현장에서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들이 사용하는 부적응적인 대처를 줄이고, 적응적인 대처를 사용하

도록 도와서 이들의 적대감 수준을 낮추고,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함의가 있다.

참고문헌

강문선 (2011).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내면화된 수치심 관계에서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0-990.

고은경 (2011). 내현적 자기애와 편집성향간의 관계: 자존감과 분노표현양식, 성격특성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석만, 한수정 (2000). 자기애성 성격장애. 학지사.

김계령 (1997). 자기애적 성격과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소희 (2004). 스트레스 사건,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진희 (2011). 청소년의 자기애성향과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의 중재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의 자기평가와 정서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255-266.

박지영 (2009). 남녀 중학생의 스트레스, 분노, 대처행동과 또래 괴롭힘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백승혜 (2004).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성향자의 적대감, 분노경험수준 및 분노표현양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선이 (2007). 내현적 자기애와 정서조절이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수균 (2007). 자존감과 자기애 수준에 따른 분노사고, 신념, 분노표현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719-734.
- 서수균 (2012). 공격성 및 분노대처행동과 주관적안녕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1(3), 849-867.
- 서수균, 권석만 (200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487-501.
- 서수균, 김윤희 (2010). 대학생용 분노대처행동 척도 개발과 그 유용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973-992.
- 신혜인 (2009).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정서경험 특성과 정서조절방략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현 (2011). 내현적 자기애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원희 (2001). 자기애와 완벽주의, 적대감 및 자기 효능감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 내현적·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자기개념명료성과 부정적 정서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2), 463-477.
- 이지영, 권석만 (2006). 정서조절과 정신병리의 관계: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3), 461-493.
- 정남운 (2001). 과민성 자기애 척도(HSNS)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93-216.
- 조은영 (2011). 내현적·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분노특성과 전위공격성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타순 (2002).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자존감과 적대감에 관한 연구.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14(1), 95-114.
- 최승미 (2012). 대학생의 자기애 성향과 분노표현양식, 방어기제유형의 관계.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정인 (2009). 평가적 피드백에 따른 자기애성향자의 자존감 변화 및 정서조절방략.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Buss, A.,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4), 452-459.
- Cooper, A. (2000). Further developments in the clinical diagnosi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In F. Elsa, & E. Ronningstam(Eds), *Disorders of narcissism: Diagnostic, clin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 London: Jason Aronson Inc.
- Cooper, A, M. & Ronningstam, E. (2002). Narcissic personality disorder. In A. Tasman, & M, B. Roba(Eds.) *American psychiatric press review of psychiatry*, 11(pp.80-97),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 Gabbard, G. O. (1989). Two subtype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53, 527-532.
- Garnefski, N., Kraaij, V., & Spinhoven, P. (2001). Negative life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proble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 1311-1327.
- Hart, P. L., & Joubert, C. E. (1996). Narcissism and hostility, *Psychological Reports*, 79, 161-162.
- Hendin, H. M., & Cheek, J. M. (1997). Assessing

- hypersensitivity narcissism: A reexamination of Murray's Narcissism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 588-599.
-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Lasch, C. L. (1976). *The culture of narcissism*. New York: Norton.
- Lazarus, R.,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McCann, J. M., & Biaggio, M. K. (1989). Narcissistic personality features and self-reported anger. *Psychological Reports*, 64, 55-58.
- Patalano, F. (1997). Narcissism and hostility. *Psychological Reports*, 80, 289-290.
- Rathvon, N., & Holmstrom, R. W. (1996). An MMPI-2 portrait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1), 1-19.
- Rhodewalt, F., & Morf, C. C. (1998). On self-aggrandizement and anger: A temporal analysis of narcissism and affective reactions to success and fail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3), 672-685.
- Robbins, S. B., & Dupont, P. (1992). Narcissistic needs of the self and perceptions of interpersonal behavi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4), 462-467.
- Rose, P. (2002). The happy and unhappy faces of narciss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 379-391.
- Spielberger, C. D., Jacobs, G. A., Russell, S., & Crane, R. S.(1983). Assessment of anger: *The State-Trait Anger Scale*. *Advances in Personality Assessment*, 2, N.J; LEA, 159-187.
-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590-597.
- 1차 원고접수 : 2012. 12. 30.
수정원고접수 : 2013. 02. 25.
최종게재결정 : 2013. 05. 29.

The Mediating Effects of Maladaptive Coping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Hostility

Eun-Hye Kim

Su-Gyun Seo

Department of psych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mediating effects of maladaptive cognitive and behavioral coping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hostility were exploratively examined in this study. Covert Narcissism,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Self blame, Blaming others, Rumination, Catastrophizing), Maladaptive Anger Coping Behavior(Avoidance, Aggressive expression) and Hostility were measured from 404 university stud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covert narcissism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ith maladaptive cognitive and behavioral coping. 2) maladaptive cognitive and behavioral coping were partially mediated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hostility as the verification results about mediating effects according to the procedure which are suggested by Baron and Kenny(1986) .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ognitive and behavioral therapeutic intervention such as stopping catastrophizing or avoidant coping patterns be effective for covert narcissistic individuals in order to help themselves lower their level of hostility. This study has significant implication at the point of understanding clearly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hostility.

Key words : covert narcissism, maladaptive cognitive and behavioral coping, hostility